I·SEOUL·U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CROSSROADS,
Building the Resilient City

DATA Books

CROSSROADS 서울비엔날레

Heritage x Modern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CROSSROADS,
Building the Resilient City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DATA Book 3

링 제로
Ring Zero

프랑클린 아지

프랑클린 아지 아키텍처

Franklin Azzi

Franklin Azzi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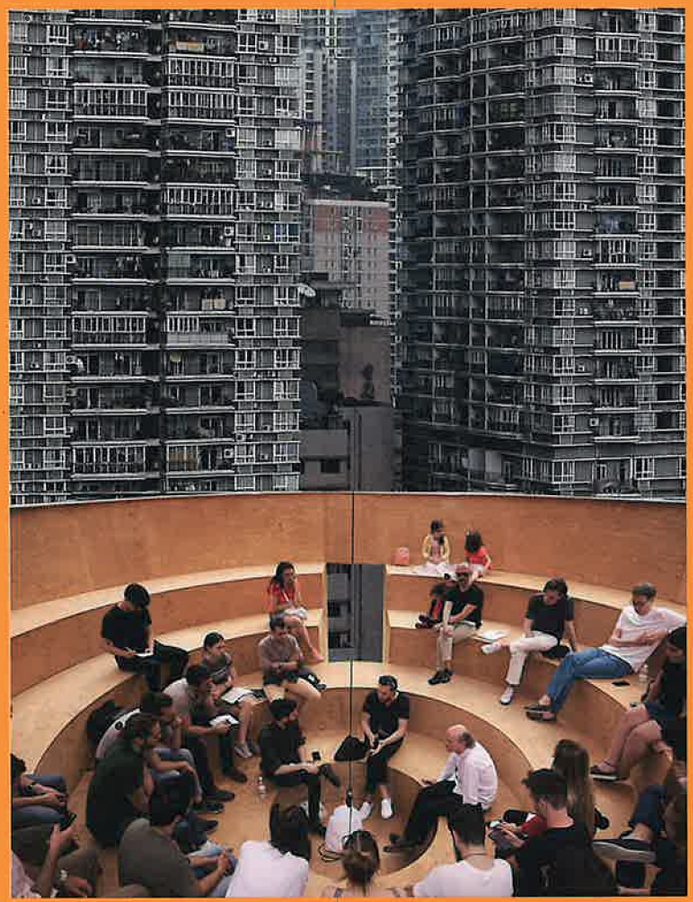


그림 1. 프랑클린 아지 아키텍처, 〈매크로아키텍처를 길들이는 마이크로아키텍처〉, 콜라주.
Figure 1. Franklin Azzi Architecture, *Microarchitecture taming Macroarchitecture*, collage.

"마이크로아키텍처"의 "매크로아키텍처" 길들이기

마이크로아키텍처는 방식과 규모 면에서 회복력 있는 건축적 반응이다. 마이크로아키텍처는 대규모 주택 단지, 도시밀도, 거대 도시, 그리고 기후변화, 전염병, 주택 위기, 인구 이동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한 저항 행위이다. 이는 환경, 위생, 사회, 도시,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Hubris'는 고대 그리스어로 자만심, 또는 공정한 운명의 척도가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 건강 위기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의 여신인 네메시스는 자연의 질서를 침해하는 인류의 과장과 불균형의 행위를 처벌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척도, 특히 인간의 척도에 대한 질문을 재도입하는 것은 프랑스의 철학자 티에리 파쿠Thierry Paquot가 그의 저서 《도시의 척도Mesure et Démesure des ville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가 도시와 지구에서의 삶에 대한 감각과 조건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아키텍처는 순수하게 건축적인 해결책을 넘어, 사회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정한 도시의 이음새를 만들고 도시 공간 내에 인간을 재도입시키는 명백한 치유적 행위이다. 이는 집단적 일관성,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식을 다시 도입하여 거시적 이상에 도전하는 미시적 관점이다.

경진기(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포함한 지역)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갈로폴리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에 중국의 수도는 뉴욕의 거의 6배에 달하는 크기가 될 것이다. 이 거대 도시는 중심부의 자금성에서 7환로까지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경제적 위대함을 상징했고, 이는 도시가 수평 및 수직적으로 제한 없이 확장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후통'과 같이 전통적인 모습을 고수하던 지역은 부동산 개발 열기에 굴복해야 했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 거대화, 무제한적인 소비주의, 그리고 초기술의 이점을 위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이웃 생활의 규범이 되는 소규모 건축 유산이 이토록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거대 도시에 회복력을 부여할 존재로는 무엇이 있을까? 합리적인 건축을 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면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는 구조는 무엇일까?

매크로아키텍처에 대항하는 마이크로아키텍처, 맥시멀리스트의 타워에 반대하는 미니멀리스트의 공간은 사회·문화·환경·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공유적·개방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에 공헌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성이 증대하고, 개인은 집단생활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협동적이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콘텐츠(근린센터, 미술관, 소극장 무대 등)를 제공하여 이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소규모가 대규모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일상에 기쁨과 감정, 그리고

"Microarchitecture" taming the "Macroarchitecture"

Micro-architecture is an architectural response that is resilient in many ways and on many scales. It is an act of resistance to resists large housing estates, urban density, the megalopolis, all forms of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pandemics, housing crisis, displacement of populations, etc. and attempts to provide an answer to various issues whether they are environmental, sanitary, social, urban or migratory.

Hubris, in ancient Greek, means outrage or excess referring to wanting more than what the fair measure of fate has given us. Put into perspective of the global health crisis, Nemesis, the goddess of rage, of indignation, would have punished actions of immoderation and disproportion violating natural order. Consequently, reintroducing the question of the "right" scale, in particular the human scale, makes the French philosopher Thierry Paquot (Mesure et Démesure des villes, 2020) think that we will be constrained to change our sense and conditions of life in the city and on earth. Even beyond a purely architectural solution, micro-architecture is thus more than ever a manifest act of a curative gesture, a real urban seam to fill a social void and reintroduce the human within the urban space. A micro perspective challenging a macro ideal by reintroducing collective consistency, solidarity and above all a common sense.

Greater Beijing aims to become the largest megalopolis in the world. By 2030, the Chinese capital should be almost six times the size of a city like New York. From the Forbidden City in the centre to the seventh ring road, the megalopolis is organized in concentric circles aiming at political and economic greatness and resulting in unlimited urbanization,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Traditional neighbourhoods, like the "hutongs", had to give way to irrational real estate development. Small-scale has almost completely disappeared for the benefit of architectural gigantism, unlimited consumerism and hyper-technology. What could be the resilience capacity of a megalopolis to cope with this radical disappearance of micro-architecture heritage, a model of neighbourhood life? What

아름다움을 도입함으로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결국 경제학자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가 그의 유명한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1973)에서 말했듯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균형 있고, 가장 공정한 것이다."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적 헌신을 다한 장 프루베Jean Prouvé부터, 아베 피에르Abbé Pierre의 《더 나은 날을 위한 집Maison des Jours Meilleurs》(1956), 그리고 발터 그로피우스와 마이클 A. 메이어의 1922년 바우카스텐 시스템(baukastensystem; 모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조립식 모듈에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건축을 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건축은 유연성, 다양성, 모듈성의 개념이 근본적인 사고로 자리잡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인간적 규모의 세계: 감각과의 재연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는 작품에서 '인간적 규모'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다학제적인 방식으로 예술적 접근법과 연결함으로써, 나는 '인간적 규모'를 건축적 구조물에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도시의 비인간화, 그리고 특히 아시아에서 메가폴리스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비대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인간적 규모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건축의 오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건축의 한계를 넘어서서 항상 더 높고 더 크게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과잉의 행사行事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많은 표류를 목격할 수 있다.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기반 시설과 더불어, 도시의 과도한 비인간화는 이러한 표류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과도과 과잉의 차원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회복력을 상상할 수 있을까?

건축적 콜라주와 도상학적 축적의 형식을 통해 프랭클린 아지 에이전시는 건축의 역사 속에서 인간과 건축의 관계를 강조하는 '미시적 서사'를 탐색하고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고유한 역사를 수립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온 건축적 모델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작은 규모'와의 관계라면 무엇이든 점진적으로 거부해 온 '확장된 도시'로서 베이징을 예로 들자면, 관건은 '인간적 규모'로부터 미래 도시를 위한 회복력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인간적 규모'의 개념은 단순한 측정 규칙이나 비율의 균형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예측하고 시공간에서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광경에 의해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환경을 인식하는 데에 25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10분도 안걸리는 시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몸짓을 식별할 수 있다. 인간은 평균 시속 5km로 움직이고, 우리의 눈에 5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있어야 걷고 싶은 마음이 든다.

따라서 인간적 규모와 건축 환경의 규모의 관계는 가독성, 접근성, 효용성, 지속 가능성, 편의성 및 아름다움의 측면으로 묘사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규모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속도와 시간에 대한 범세계적 고민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또한 의미와 인식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느린 것에서부터 빠른 것, 가까운 것에서부터 먼 것, 불화에서부터 조화로운 것까지 탐험하는 것이다.

could be capable and flexible structures to initiate a reasonable architecture?

Micro-architecture vs macro-architecture, a minimalist space in opposition to a maximalist tower, is a resilient attempt to contribute to urban sustainability not only on a social, cultur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level but mainly to encourage initiatives for creating shared and open spaces and structures fostering social links and allow individuals to find real pleasure in collective life. Their activation by offering collaborative, innovative and creative contents, like for example, neighbourhood centres, art galleries, small theatre stages, leads us to hope that the small scale will be able to tame the large scale and contribute to ensure the survival of humanity by introducing joy, emotion and beauty. In the end, as the economist E.F. Schumacher said in his famous work Small is beautiful (1973) "the smallest turns out to be the smartest, the best proportioned, the fairest".

From Jean Prouvé and his social commitment to the most underprivileged, alongside Abbé Pierre with the Maison des jours meilleurs (1956), to the Baukasten system developed by W.Gropius and A.Meyer (1922) offering by prefabricated modules an almost infinite field of possibilities, another way of "doing architecture" at the service of users. The architecture becomes a generic system where the notion of flexibility, diversity and modularity is at the origin of conceptual thinking.

A world on a human scale - Reconnecting with the sensitive

For more than ten years, the architect Franklin Azzi has been questioning the notion of "human scale" within its productions. By reconciling disciplines and building bridges between artistic practices, the question of preserving the reference to the "human scale" within built structures is constantly at stake. Faced with the dehumanization of cities, the sprawling development of megapoli especially in Asia, we are witnessing the gradual disappearance of the human scale. Man, during the long history of architecture, has unceasingly tried to go beyond the limits of the constructible, building always higher and always bigger. In this exercise of excessiveness, many drifts can be observed today.

The excessive dehumanization of cities is a first striking example, as well as the sprawling infrastructures necessary for the daily movements of the populations. Faced with these excesses, these over-dimensions, what kind of resilience can we imag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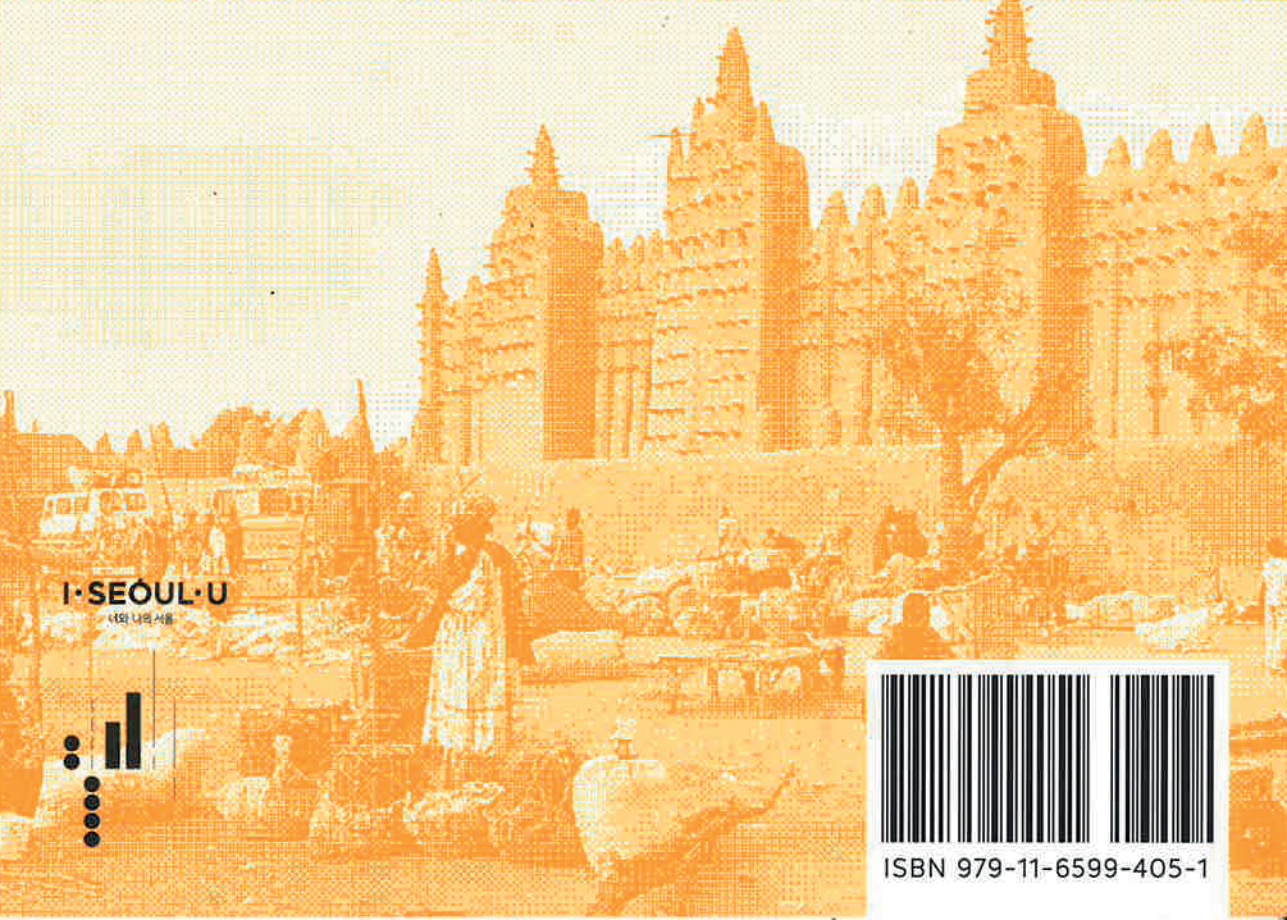
In the form of architectural collage, of iconographic accumulation, Franklin Azzi agency proposes to explore and delve into the "micro-narratives" that highl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architecture with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Far from establishing a unique history, it is about tracing the different narrative networks of architectural models that have constantly mirrored this relationship.

Taking the city of Beijing as an example of an "expanded city" that has gradually rejected any relation to the "small scale", it is a question of drawing from this "human scale" the resilience potentials for our cities of tomorrow. Far from being a simple rule of measurement or a ratio of proportion, the notion of "human scale" also incorporates the ability to anticipate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and to project himself in a space-time. It is interesting to know, for example, that within 25m man has a sufficient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to be able to be moved by a scene. At less than 10m, he may identify someone's gestures. Humans move at an average speed of 5km/h. The eye needs to be stimulated every 5 seconds to be encouraged to wal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scale and the scale of the built environment therefore raises the issue that is expressed in terms of legibility, accessibility, utility, sustainability, hospitality and beauty. Questioning these relationships of dimensions integrates a global reflection on speed and time, but also on meaning and perception. From small to large, from slow to fast, from near to far, from discordant to harmonious ···

DATA Book ❸

유산 x 현대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ISBN 979-11-6599-405-1

1. Toward a New Resiliency
2. Above × Below
3. Heritage × Modern
4. Craft × Digital
5. Natural × Artificial
6. Safe × Risk
7. Architecture × Infrastructure

I·SEOUL·U

KRW 38,000
ISBN 979-11-6599-405-1 (Set)